

최근 고용동향 분석

남재량 · 성재민 · 김복순*

I.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들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40만 명 이상씩 증가하여 왔으며, 연말에 이르러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14년 들어 더욱 커져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0만 명을 넘어 섰고 2월에 다시 80만 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3월 들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65만 명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73만 명가량 증가하여 2002년 1/4분기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의 의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최근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설명한 뒤, 이러한 성과의 특성과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제Ⅲ장은 이상의 분석들로부터 시사점을 찾고 연구를 마무리한다.

Ⅱ. 최근 고용성과의 현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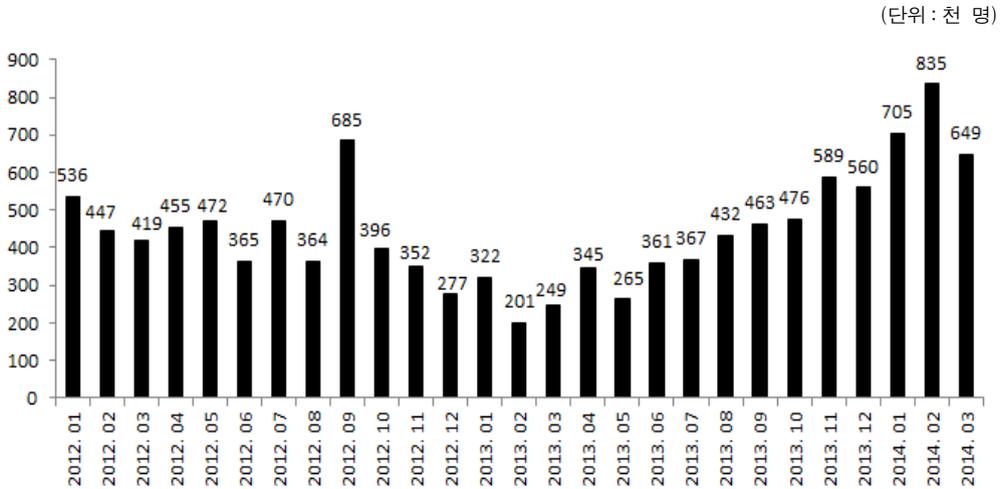
1. 최근의 고용성과

먼저 최근의 고용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1]에서 보듯이 2012년 들어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mam@kdi.re.kr),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ongim@kdi.re.kr),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csaram@k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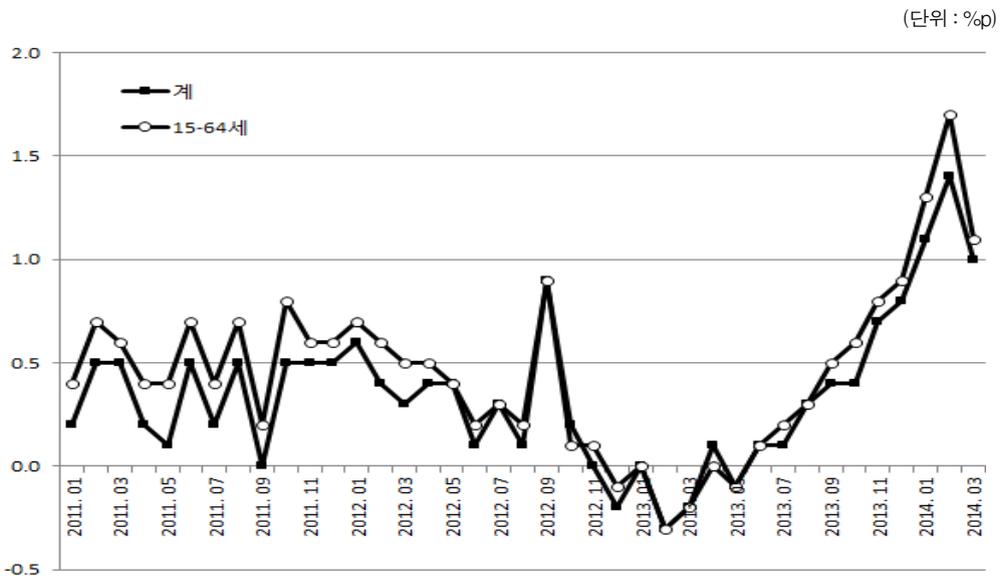
점점 둔화세를 보이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13년 들어서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2013년 2월 취업자 수 증가가 201천 명에 그쳤다. 당시 15세 이상 인구가 55만 명 정도 증가하던 시기였으므로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부진한 고용성과는 2013년 상반기 내내 지속되었다.

[그림 1] 최근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4. 5), 『국가통계포털』.

[그림 2] 최근 고용률 증감 추이



자료: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4. 5), 『국가통계포털』.

그러나 하반기 들면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취업자 수 증가는 더욱 크게 개선되어 연말에 고용증가가 5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되어 2014년 1월 705천 명 증가, 2월 835천 명 증가, 그리고 3월 649천 명 증가를 기록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최근 성과가 기록적인 결과인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의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용률 지표를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¹⁾ [그림 2]는 이를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2012년 들어 둔화세를 보이던 고용률 증가폭은 2013년 초에 음(-)의 값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3년 하반기 들면서 회복세로 바뀐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과 2월의 성과는 놀랄 만하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자 그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관망하던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자리를 얻어 실업상태에서 벗어났지만, 계속 구직 중인 사람들, 즉 실업자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취업자도 증가하지만 실업자도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 2월과 3월의 실업자 수는 크게 증가하여 100만 명을 넘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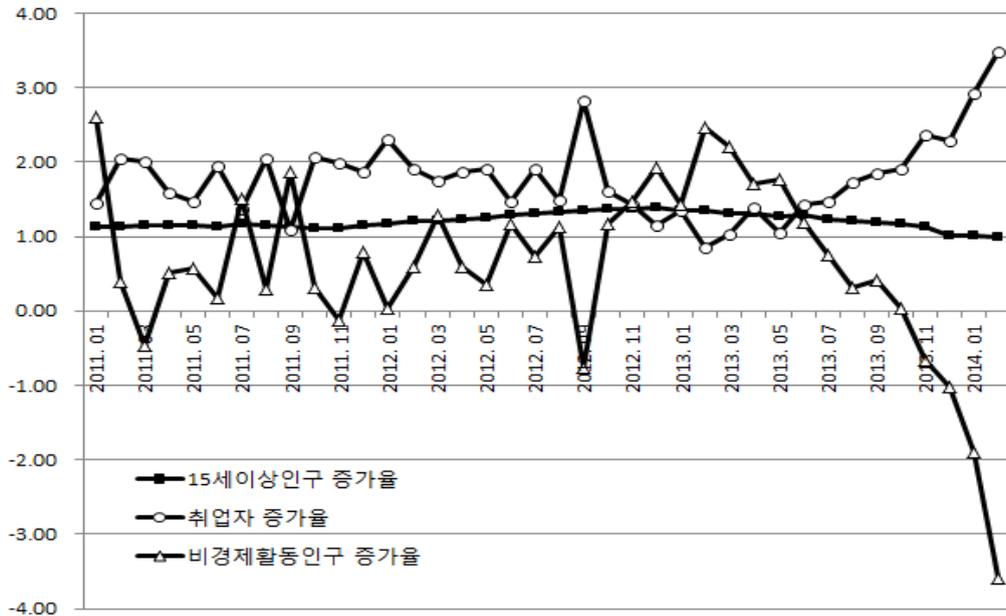
실업자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에 힘입은 것임은 다음의 [그림 3]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 증가율이다. 그동안 등락을 거듭하던 비경활 증가율은 2013년 들어서면서부터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매우 큰 음(-)의 값을 보이며 더욱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증가율이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많은 부분이 취업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비경활에 있던 사람들도 취업상태로 옮겨가고 있는 것임을 암시한다. 기존의 실업자 가운데 새로 취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증가된 인구와 비경활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인구 증가와 취업자 증가 그리고 실업자 증가가 비경활 감소라는 현상과 함께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비경활 감소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1) 잘 알려져 있듯이 고용률은 취업자가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국정과제로 제시된 고용률 목표는 15~64세 기준이다.

2) 2014년 2월과 3월의 실업자 수는 각각 1,178천 명과 1,024천 명인데,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188천 명과 141천 명 증가한 것이다. 3월의 실업률도 3.9%로 전년 3월에 비해 0.4%p 상승하였다.

[그림 3]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수,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단위 : %)



자료: 남재량 · 성재민 · 김복순(2014. 5),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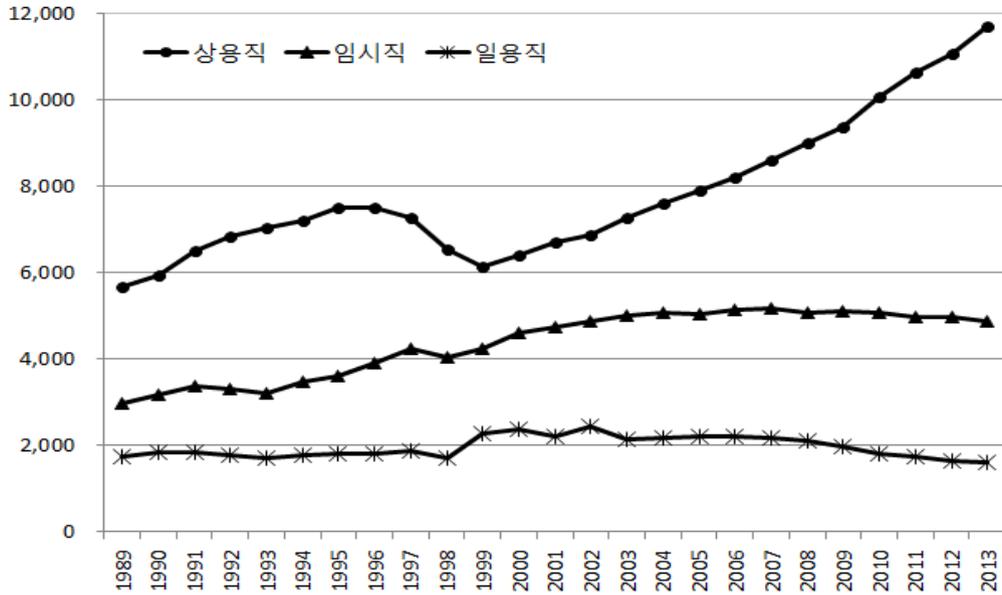
2. 최근 고용성과의 특징 및 원인

최근의 고용성과는 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성과를 초래한 원인은 어떠한 지 알아보자. 우리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의 특징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비교적 최근 들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동향상의 새로운 특징들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힘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이고, 넷째는 기저효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요인들도 존재한다. 각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상용직의 지속적인 증가와 50세 이상 연령층 고용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상용직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와 달리 외환 위기를 제외한 전 기간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지속적으로 강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는 경기와 무관하게 장기간 지속된 상황이므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용구조를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월별 자료로 보더라도 상용직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림 4)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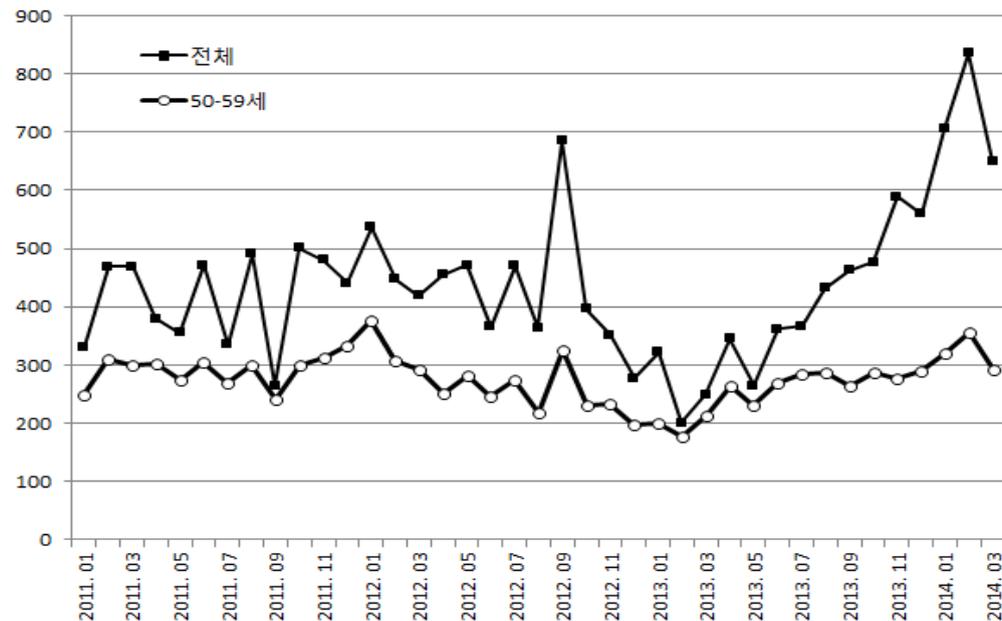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4. 5), 『국가통계포털』.

(그림 5) 전체 및 50대 연령층 고용증감

(단위: 천 명)



자료: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4. 5), 『국가통계포털』.

한편 50대 취업자 증가는 베이비부머가 50세에 진입한 2005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도 50대 주도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취업자 증가의 60~90%를 50대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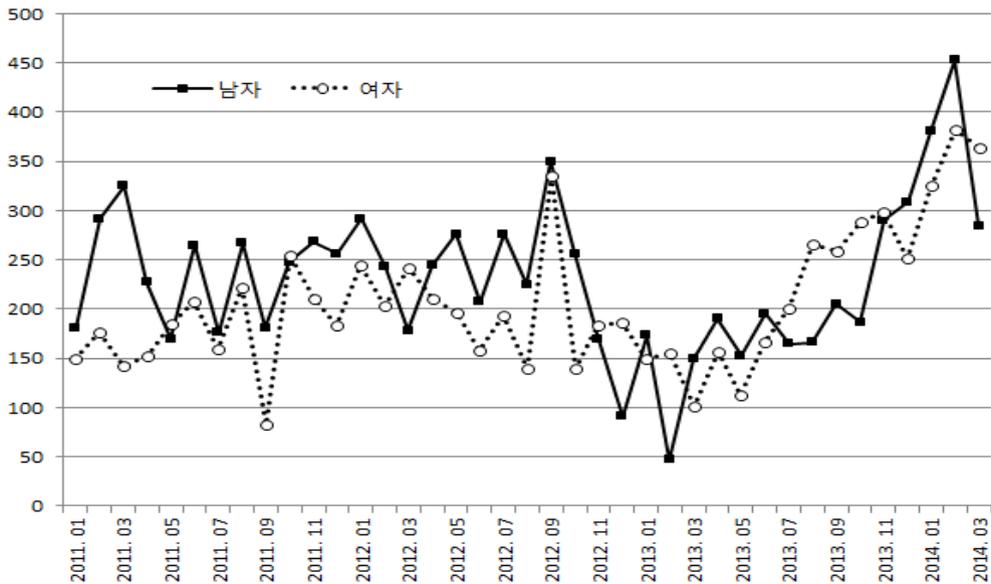
[그림 5]는 최근의 50대 연령층 고용증감을 월별로 보더라도 최근의 고용 증가의 많은 부분을 50대가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13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50대 고용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와 급격히 괴리되고 있는데, 이는 50대 연령층의 고용증가세 둔화에 따른 것이 아니다. 50대 이외의 다른 연령층, 즉 60세 이상과 청년층 그리고 40대 연령층의 고용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둘째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동향상의 특징들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중요한 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2013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로서 여성과 서비스업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의 고용성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6]은 최근 성별 고용증감을 월별로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2013년 하반기 들면서부터 여성의 고용증가폭이 남성의 경우를 상당히 크게 추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3개월간 사라졌다가 2014년 3월에 다시 등장한다. 여성 추월 현상이 잠깐 사라진 것도 여성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기보다는 남성의 고용성과가 더욱 우수하

[그림 6] 성별 고용증감

(단위: 천 명)



자료: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4. 5),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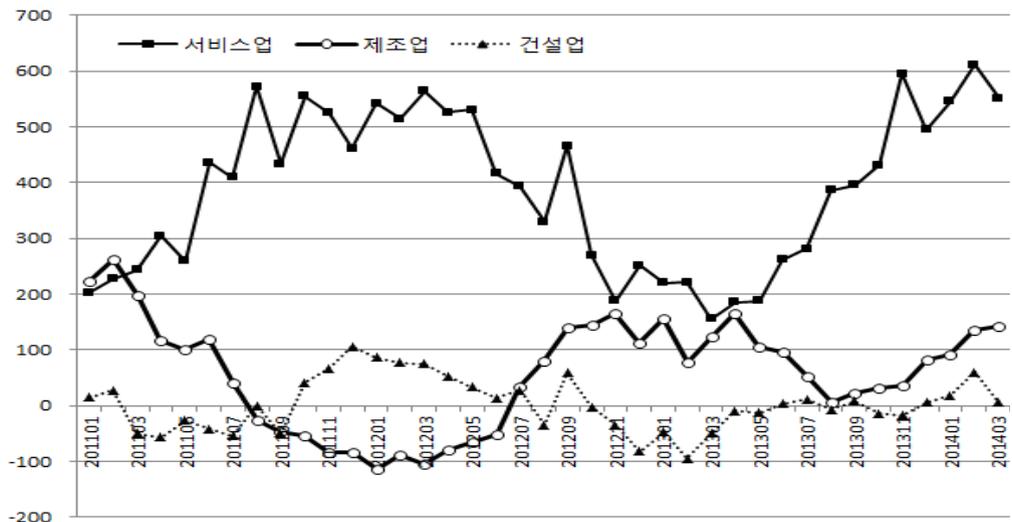
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용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돌봄서비스 산업의 팽창 등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서비스업 중심 고용증가 역시 여성의 우수한 고용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고용성고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시기에서 서비스업의 고용증감이 제조업의 경우를 초과하고 있고 많은 기간에서 양자의 격차는 매우 크다. 다만 2013년 상반기 동안에는 양자가 매우 근접해 있어서 제조업이 고용성장에 대한 기여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들면서부터 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져 최근 고용 성장에 대한 기여는 서비스업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고용증가가 최근 들어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림 8]로부터 잘 알 수 있다. 다만 역시 2013년 상반기 동안 고용증가에는 대규모 사업체도 중소기업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 시기 동안 제조업, 대규모 사업체, 그리고 남성 위주의 고용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이들의 역할에 힘입어 당시의 저조한 고용실적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시기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엄청나게 증가하여 대규모 사업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특히 2014년 1/4분기 동안 중소기업의 고용성장은 경이적이다.

[그림 7] 산업별 고용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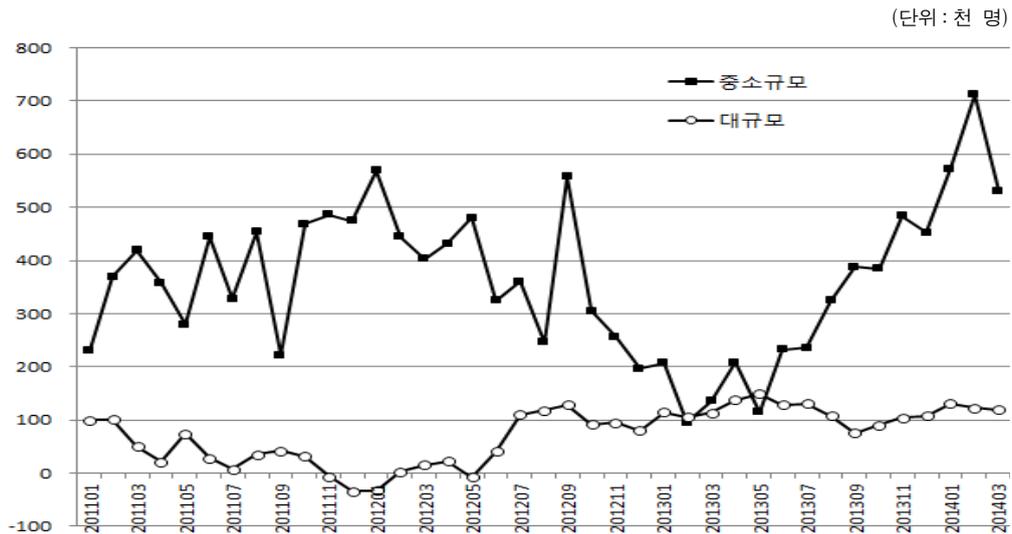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4. 5),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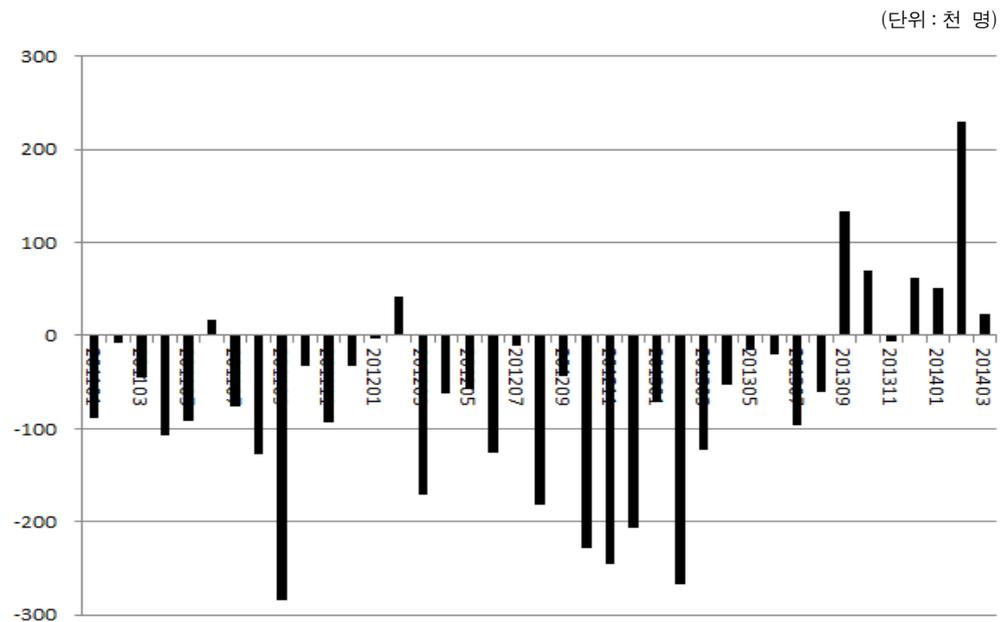
요컨대 2013년 하반기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여성, 서비스,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체 중심의 고용성장이 새로운 특징들로 자리잡으며 고용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8)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자료: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4. 5), 『국가통계포털』.

(그림 9) 신규채용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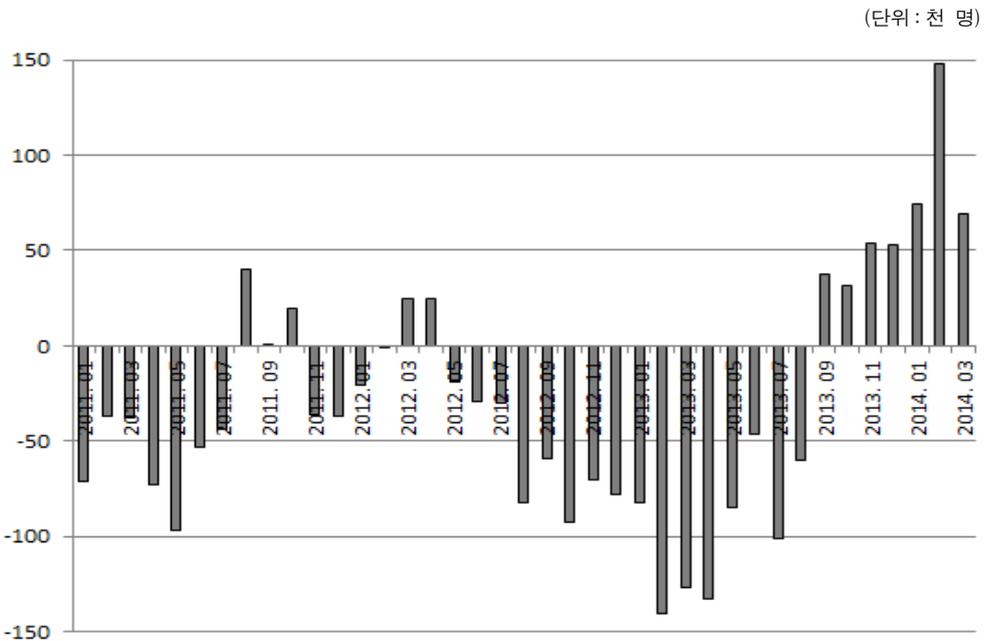
자료: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4. 5), 『국가통계포털』.

셋째로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를 들었는데 신규채용, 청년고용의 증가, 서비스업 고용증가 등이 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의 증감으로 흔히 측정되는 신규채용을 보면 [그림 9]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막대가 위쪽을 향하고 있어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에서 청년고용의 증감을 보면, 신규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막대들이 최근 들어 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 기저효과이다. 2014년 1월과 2월의 월등한 고용성과는 각각 설 특수와 기저효과에도 일정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2월의 고용성과가 크게 부진하여 2014년 2월의 고용성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기타 효과들이다. 이는 고용증가를 그리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제조업 부문과 대규모 사업체에서 꾸준한 고용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조업은 [부도 1]에서 보듯이 1991년을 고비로 근로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단기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컸던 2009년의 고용감소를 이후 충분히 회복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고용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에 걸쳐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한 바 있다(남재량·김복순·송민수, 2013. 7, 2014. 4). 이후에

[그림 10] 청년(15~29세) 고용증감



자료: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4. 5), 『국가통계포털』.

도 [그림 7]에서 보듯이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최근의 고용성과에 기여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비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그리 크지 않다. 근로자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사업체들이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크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들이 상당한 정도의 고용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고용성과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3월을 중심으로 최근 고용증가의 특징을 정리하면, 2013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새로운 특징들이 2014년 3월에 다시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1월과 2월의 큰 폭의 취업자 증가는 설 특수와 기저효과 등에 일시적으로 힘입은 바 컸으나, 3월 들어 그러한 일시적 영향들의 상당부분이 사라진 가운데 2013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여성·서비스업·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성장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비스업과 청년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채용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대규모 사업체의 꾸준한 고용증가가 어우러져 3월의 고용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상용직의 지속적이고 강한 증가세와 5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증가가 이러한 고용성과의 가장 큰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재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들로 다양한 사실들을 들 수 있겠으나 고령화, 고학력화, 그리고 여성화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힘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들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요 특징들은 일반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즉 노동공급 측면의 중요한 변화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수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고령화와 고학력화 및 여성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거나 새로 생겨나는 부분도 존재하며 이에 따라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돌봄서비스 산업이다. 고령화, 여성화, 그리고 고학력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는 관련산업의 성장 및 고용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돌봄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9년 동안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회복이 지속될 경우 과거 2000년대 중반에 비해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겠다.

Ⅲ. 맺음말

본 연구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의 고용구조를 잘 파악하는 한편,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포착하고 이들 사실들(facts)을 바탕으로 고용의 성과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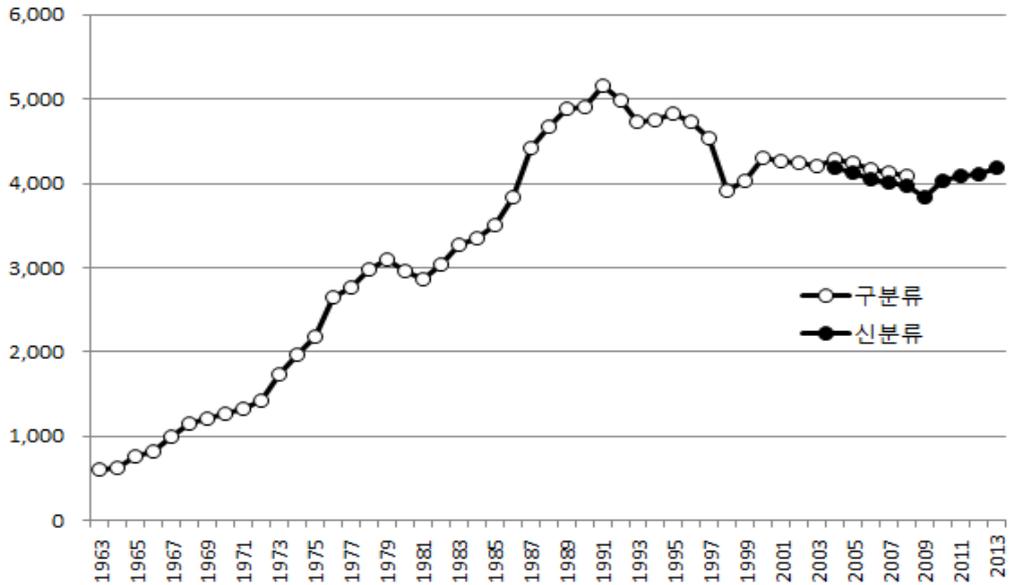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령화, 여성화, 고학력화라는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도 파생되고 있다. 돌봄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이 최근 9년 동안 100만 명가량 증가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최근의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결과에다 경기변동 등 고용에 우호적인 일시적인 요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KLI**

<참고문헌>

-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4. 5), 「2014년 3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매월고용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3. 6), 「2013년 4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매월고용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김복순·송민수(2014), 「최근 제조업 고용성과 분석 -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3. 7), 「최근 제조업 고용성과 분석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매월고용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부도 1] 제조업 근로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남재량·성재민·김복순(2013. 6), 『국가통계포털』.